

나인뮤지스 동생 라인 네명이 뭉쳤다

첫 유닛 나인뮤지스A, '뮤지스 다이어리' 발표

늘씬한 몸매와 성숙한 외모로 '모델'이라고 불리며 섹시 카리스마 계보를 대표하는 팀으로 자리 잡은 그룹 나인뮤지스의 동생 라인 네 명이 나인뮤지스A로 뭉쳤다. 데뷔 6년 만의 첫 유닛이다. 4일 서울 도봉구 플랫폼창동61에서 열린 나인뮤지스A의 첫 앨범 '뮤지스 다이어리(MUSES DIARY)' 발매 쇼케이스에서 리더를 맡은 헤미는 "새로운 유닛으로 데뷔한 설이기에 때문에 신인의 마음으로 귀여운 인사법도 만들었다"고 팀의 색을 소개했다.

나인뮤지스를 표현하는 '센 언니' 이미지에 발랄함과 상큼함, 소녀감을 더해 새로운 모습을 선사할 예정이다. '뮤지스 다이어리'는 20대 중반 청춘을 살고 있는 네 멤버가 써 내려간 사랑, 우정,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아가자기하고 톡톡 튀는 색으로 표현한 앨범이다. 한층 더 풋풋하고 부드러운 나인뮤지스A의 매력을 담았다.

"좀 더 신선하고 어려운 부분이 나인뮤지스 완전체와 비교 달라진 점이라고 생각해요"(경리). "나인뮤지스의 시월시월한 색시미에 귀여움을 더한 종합선물세트가 될 것 같아요"(헤미). 나인뮤지스A는 나인뮤지스에 어뮤즈(Amuse)의 A를 붙인 이름이다. 많은 사람에게 무대를 통해 즐거움을 준다는 의미다. 멤버 헤미와 최근 계약 만료로 나인뮤지스를 탈퇴한 전 멤버 민하가 함께

만들었다. "A에 어울리는 단어를 찾기 위해서 영어사전의 A 섹션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집어 봤어요. 어뮤즈라는 딱 어울리는 단어를 발견해서 너무 뿌듯했습니다." 타이틀 곡 '입술에 입술'은 나인뮤지스의 히트곡 '드라마' 등으로 오래 함께 한 프로듀서 정창욱의 작품이다.

레트로를 기반으로 뉴웨이브와 EDM의 한 장르인 펠버튼 비운스 요소를 더한 경쾌한 댄스곡으로 아찔하고 애타는 윙크에 들어간 연인의 이야기를 진성과 가성을 넘나드는 보컬로 표현했다.

경리, 헤미, 금조의 탄탄한 보컬과 데뷔 후 처음 래퍼로 변신한 소진의 색다른 모습이 돋보이는 곡이다.

"나를 곡들과 타이틀 경합을 벌였을 때 저희가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의견을 내서 타이틀이 된 노래예요. 애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대도 크고요"(금조). 이 외에도 앨범에는 너의 우주에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을 담은 '유어 스페이스(Your Space)', 강한 퍼포먼스가 돋보이는 댄스곡 '쉿!(Shh!)', 연인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몬스터(MONSTER)' 등이 담겼다. 이원(e.ore), 어벤전승 등 히트곡 메이커가 대거 참여했다.

유닛으로 올 여름 걸 그룹 대전에 출사표를 던진 나인뮤지스A는 "좋은 결과로 유닛에 함께 하지 않은 멤버 언니들에게 보답하고 싶다"(소진)는 각오를



최근 나인뮤지스A 첫 번째 싱글 앨범 '뮤지스 다이어리(MUSES DIARY)' 쇼케이스가 서울 도봉구 플랫폼 창동61에서 열린 가운데 멤버들이 열창하고 있다.

밝혔다. 나인뮤지스는 지금까지 늘 좋은 노래, 훌륭한 비주얼로 승부수를 던졌음에도 강력한 한 방이 없어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팀이다. 이제는 숫자로 드러나는 성적보다 "우리의 만족감과 대중의 인정"(헤미)이 목표다.

"1위를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고 즐기자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좋은 기회가 와서 기쁘고 나인뮤지스A로도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히 확고하게 활동하는 그룹이 되고 싶어요"(경리)

/김민근기자

평창 조직위, 쇼트트랙 자원봉사자 워크숍 개최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올림픽 기간 중 쇼트트랙에 투입될 스포츠 자원봉사자 교육을 위한 워크숍이 5일 밤상 종목 개최도시인 강릉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조직위 경기부 쇼트트랙 스포츠 매니저를 비롯해 이미 선발된 쇼트트랙 스포츠 자원봉사자 중 140여 명이 참여했다.

쇼트트랙 경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스포츠 자원봉사자 소양 교육이 이뤄진다. 또 종목을 직접 체험하면서 실제 종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도 마련됐다.

조직위는 지난 3월28일부터 4월18일까지 대한빙상경기연맹 및 국내 주요 대학교 체육학과와 협력해 쇼트트랙 자원봉사자를 모집했다. 이 때 선발된 18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5월21일 1차 워크숍을 개최했다.

/김민근기자

"박보검, 광고에서 중국 열사" ...중 한류 매리기

한국 배우 박보검이 중국을 열사한 광고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못매를 맞고 있다.

4일 중국 포털 시나 연예채널 등은 박보검이 의류 브랜드 케이스위스(K-SWISS) 광고에 출연해 만리장성과 중국의 존엄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광고가 공개된 것은 지난 1월로, 7개월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논란이 됐다. 잡에서 박보검이 한민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험한 여론의 표적이 됐다.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광고는 박보검이 비록경기에서 만리장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중국 대표로 추경되는 남성에 승리를 거두는 상황을 담고 있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광고 속에 등장하는 남성이 만리장성인데다가 뚱뚱하고 못생긴 모습인 점이 중국인들의 불편한 심기를 자극했다. 게다가 비록 대결 이후 춤 배를 장면에서 '만리장성'은 한 여성에게 뺨을 맞기도 했고 박보검 등 주변사람들이 이를 보며 박장대소하는 장면도 중국인들의 심기를 건드렸다.

중국 관영 환우스바오가 자체 사이트를 이용해 진행한 여론 조사에서 박보검이 해당 광고에 출연한 것에 관련해 참여자의 78%는 연예인 본인에게, 22%는 광고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근기자

박유천 성폭행 첫 고소녀 '무고·공갈미수 혐의' 구속

'범죄 사실 소명되고 증거인멸 도망의 염려가 있다' 같은 사유로 이씨의 사촌오빠 황모씨도 함께 구속

가수 겸 연기자 박유천(30)씨를 성폭행 혐의로 최초 고소한 여성이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로 5일 구속됐다.

지난 4일 첫 고소여성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사유로 이씨의 사촌오빠인 폭력조직 조직원 황모씨도 함께 구속됐다.

하지만 이씨의 남자친구인 이모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씨를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로, 이씨의 남자친구와 황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지난 1일 사전 구속영장을 각각 신청했다.

경찰은 박씨와 이씨 측 사이에 1억원이 오간 정황을 포착해 애초 공갈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이 돈이 공갈 행위의 대가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해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저지른 무고·공갈 범죄의 중대성과 진술 담합 등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다만 공갈 심증은 가나 현재까지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공갈 미수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지난 6월4일 강남의 한 유흥주

점 화장실에서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같은 달 10일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가 닷새 만에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고 주장을 번복하면서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이씨의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16일과 17일 20대 여성 3명이 박씨에게 비슷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잇따라 고소했다.

박씨는 성폭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4명의 고소 여성 가운데 이씨와 두 번째 고소 여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특히 이씨와 이씨 남자친구, 황씨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내기에 앞서 성관계를 빌미로 5억원을 요구했다며 공갈 혐의로도 고소했다. 당시 공갈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제출했다.

황씨는 경기 일산을 활동 무대로 삼는 '일산식구파' 조직원으로 지난 2013년부터 경찰 관리 대상에 올라있는 조폭이었

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다음주 중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15일 박씨에 대한 성폭행 피소 사건 4건에 대해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신 박씨가 고소 여성 4명 중 1명과 성관계를 갖는 조건으로 금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뒤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성매매와 사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박씨와 성매매 한 여성도 성매매 혐의가 적용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박씨와 성매매와 사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박씨는 피소 후 6월30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총 6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민근기자

젝스키스 '단독 콘서트 11일부터 예매 진행'

16년 만에 재결합한 그룹 '젝스키스'의 단독 콘서트 예매가 오는 11일부터 진행된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다음달 10일~11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젝스키스의 단독 콘서트 'YELLOW NOTE'는 오는 11일 밤 8시부터 옥션에서 예매할 수 있다.

YG는 공식 블로그에 예매 일정과 함께젝스키스를 상징하는 노란색으로 꾸며진 단독 콘서트 'YELLOW NOTE' 공식 포스터도 공개했다.

1997년 1집 '학원별곡'으로 데뷔한젝스키스는 '폼생폼사' '커플' '너를 보내며' 등 히트곡으로 2000년 5월 해체하기까지 3년 동안 짧고 굵게 활동하며 당시 'H.O.T'와 쌍벽을 이루는 인기를 누리던 팀이다.

최근 MBC TV '무한도전'에서 진행한 '토요일 토요일은 가요대잔치' 16년 만에 재결합했다.

YG는 "2000년 해체 이후 16년 만에 단독 콘서트를 열게 된젝스키스가 완성도 높은 무대와 다양한 이벤트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민근기자